

4주, 대련에서의 생활

D-1 ~

6월 26일, 설레는 마음을 앓고 대련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비행기를 타고 한 시간이면 도착하는 가까운 거리지만, 한국을 떠나 중국 현지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언제나 새로운 희망과 즐거움을 안겨준다. 대련을 도착해서 학교 근처로 갔을 때, 선생님 두 분이 맛있고 푸짐한 음식으로 우리를 환영해 주셨다. 다들 중국에서 유학생생활을 해봤던 친구들이라 그런지 우리는 도착하자마자 별 탈 없이 중국음식과 현지에 적응할 수 있었다. 기숙사로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짐을 풀고 필요한 것들을 적었다. 기숙사는 2인 1실로 침대 두 개와 TV가 있고, 화장실과 책상 두 개가 있었다. 부엌은 따로 없었고 식사시간이 되면 나가서 사먹어야 했다.

D-2 ~

도착한 다음날부터 우리는 바로 수업을 시작했다. 아침 9시부터 3시간은 회화수업이었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듣기 수업이었다. 회화 선생님은 얼굴에 항상 함박웃음을 띄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듣기 선생님 또한 졸릴 수도 있는 오후수업을 유머러스하게, 이끌어 나가셨다.

수업이 끝난 뒤 우리는 개별적으로 활동 할 수 있었다. 다행히 학교 문을 나가면 멀지 않은 곳에 대형마트와 백화점들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학교가 끝난 뒤 기숙사에 없는 거울, 옷걸이, 휴지 등을 쉽게 살 수 있었고, 점심시간과 학교가 끝난 뒤 저녁 시간이 되면 우리는 싸고 맛있는 학생식당을 주로 이용했다. 학생식당은 가격이 저렴하면서 맛도 있었고, 종류 또한 많아서 질리지 않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다.



< 학생 식당에서의 밥 >

D-3 ~

회화 선생님께서는 카드를 준비하여 날마다 다른 친구들과 앉을 수 있도록 하셨다. 매일 PPT를 준비해 오셨고,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면서 중요한 용법들을 알려주셨다. 수업을 하면서 중요한 용법이나 자주 쓰는 문장들이 나오면 우리들로 하여금 직접 말하게 하셨다. 5분정도의 시간을 준 뒤 짝과 함께 발표를 하는 식의 수업이었다. 듣기 선생님 역시 매 시간 마다 PPT를 준비해서 설명해 주셨고, 수업시작 전에 한편에서 두 편 정도의 뉴스를 보여주셨다. 현지 중국에서 방송되고 있는 뉴스를 듣고 보면서, 중국의 상황도 많이 알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

D-4 ~

대련의 날씨는 선선 했고, 비도 자주 내렸다. 대련에 도착해서 어영부영 짐 풀고, 오자마자 수업을 듣는 바람에 다 같이 함께한 자리가 없었다. 비록 비는 부슬부슬 내리지만 오늘 저녁에는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수업이 끝난 뒤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여 교수님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D-6 ~

차가 막혔지만 그래도 처음 어딘가 간다는 생각에 너무 기뻐다. 금석탄이 적혀있는 배에서 사진을 찍고, 소림사에서 훈련했던 사람들의 공연도 보았다. 못 위를 맨발로 걸어가서 입으로 무거운 양동이를 입으로 들어 올리는 장면에서는 정말 감탄을 금치 못했다. TV에서만 보던 이런 공연

을 보게 되어서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그 다음 모택동 박물관을 갔다가 인체 박물관을 갔는데, 그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실제 사람이라고 했다. 처음 보는 적나라한 모습에 조금 놀라기도 했지만, 금방 호기심을 갖고 살살이 살펴보았다.



<금석탄 배에서 단체 샷>



<인체 박물관>

D-9 ~

오전 오후 수업이 모두 끝난 뒤 공장을 견학 하러 갔다. 기업을 방문한다기에 회사를 기대했지만, 빌딩 안의 회사가 아닌 허름한 공장 이었다. 버스를 타고 한참 달려서 세워준 어느 허름한 공장 앞. 너무나도 시끄러운 기계음 속에서도 곳곳이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계셨다. 사방이 시멘트벽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무표정도 없이 같은 일만 반복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 몽클한 느낌이 들 정도였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한 달에 3000~4000元 정도 받는다고 하셨다.



< 공장 내부 >

D-16 ~

7월 12일 목요일, 이른 아침 우리는 심양으로 출발 했다. 기차를 타고 심양을 도착하는데 5시간이 걸렸다. 기차에서 내렸는데 비가 조금씩 내

리기 시작하더니 점점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했다. 그래도 첫 여행이니 만큼 비가 오는 날은 기억에 더 남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숙소까지 우산을 쓰고 걸어갔다. 숙소에 짐을 풀고 다 같이 모여 교수님께서 일정을 정해 주셨다. 심양에서 부터는 자유 일정인데, 교수님께서 말씀 해주신 곳은 꼭 가봐야 하는 방식이었다. 짐을 내려놓고 박물관으로 향했지만, 문이 닫혀서 '태원가'로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대련에만 있다가 심양을 와서 그런지 쇼핑센터 규모도 어마어마했고, 모든 게 다 좋게 느껴졌다. 다행히 심양으로 공부를 하러왔던 친구가 있어서, 길 헤매지 않고, 편하게 곳곳을 움직일 수 있었다.

D-17 ~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심양 박물관으로 향했다. 1층부터 5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박물관은 시설이 너무 깨끗하고 좋았다. 그리고 너무 인상 깊었던 것은, 딱딱한 박물관을 꺼려하는 아이들을 위해 5층은 아이들이 보기 쉽게끔 만들어 놓았다는 점이다. 어려운 말, 사진들이 아닌 지점토로 직접 모형을 만들어 놓기도 했고,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 전시해 놓기도 하는 등, 아이들의 눈에 맞춰서 이해시켜 주려는 의도가 너무 인상 깊었다. 박물관을 다 돌아본 뒤 우리는 배가 고파졌다. 심양에서 제일 오래된 100년이 넘는 만두 가게가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곳을 찾아 갔다.



< 100년 된 전통의 만두 가게 >

< 만 두 >

그 명성답게 택시기사분도 그 가게를 알고 계셨고, 우리가 찾지 못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모두 그 만두집을 알고 있었다. 사람들의 설명으로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간 만두집은 건물이 웅장했고, 손님들 또한 많았다. 많은 종류의 만두 중에 4판을 시켜서 먹었는데, 아마 내가

중국에서 만두를 먹어 봤던 맛 중에 제일 맛있었던 만두로 기억 된다.

기분 좋게 만두를 먹고 우리는 고궁으로 향했다. 도착한 첫 날만 비가 왔고, 둘째 날 부터는 찜통더위가 시작됐다. 고궁은 어딜 가나 크고 넓었지만 정교했다. 이곳저곳 샅샅이 둘러보다가 일인당 5元하는 차를 타고 나왔다. 오늘 저녁은 다 같이 모여서 북한 식당을 가기로 한 날이다. 북한 사람은 어떨지 음식은 맛이 있을지 기대를 하며 약속 장소로 향했다. 북한식당 종업원들은 여자였는데 하나같이 너무 예쁘고 단아해 보였다. 6시 30에 우리는 한 테이블에 모여서, 오늘 있었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며 여유 있는 식사를 하였다. 7시부터 공연이 시작 되어 식사를 하면서 공연을 봤는데, 목소리가 너무 맑고 깨끗했다. 거의 끝 무렵에 평양냉면을 먹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맛이 있었다.



< 공연 하는 모습 >



< 평양냉면 >

D-18 ~

심양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五愛市場’을 갔다. 우애 시장은 심양에 있는 도매시장으로써 규모가 엄청 났으며, 가격 또한 저렴했다. 한 건물 이 아니라, 여러 건물에 각기 다른 종류의 물건들을 팔았고, 너무 커서 자칫하면 길을 잃을 수도 있겠다 싶었다. 시장을 둘러보고 다시 숙소로 와서 짐을 챙기고 로비에 모였다. 인원확인 후 우리는 다시 5시간동안 기차를 타고 대련으로 돌아왔다.

D- 22 ~

오늘은 말하기 시험이 있는 날. 두 명씩 조를 정해서 제비뽑기를 한 후 그에 맞게 대화를 하는 방식 이었다. 거의 같이 사는 친구들 끼리 한 조

를 이루었다. 한 조가 발표를 하면 그 다음 조는 5분 정도 준비를 하고 있다가 발표를 하는 방식 이었다. 우리는 호텔 예약을 하는 상황 극 이었는데, 너무 떨려서 엉뚱한 얘기와, 쓸데없이 큰 리액션만 했던 것 같은데, 다행히도 교수님께서 좋게 봐주셨던 것 같다.

D- 24 ~

7월 19일 목요일, 대련 민족대 에서 마지막 수업을 했다. 처음 버스에서 내려 학교를 둘러봤을 땐 낯설고 어색했던 캠퍼스가, 3주간 학교를 다니면서 알게 모르게 익숙해지고, 편해졌던 것 같다. 그리 크지 않아서 길은 헤매지 않고 잘 찾아 다녔지만 막상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묘했다. 오전 회화 수업을 두 시간 정도 하고, 한 시간을 남겨두고 우리는 두 조로 나누어서 간단한 게임을 했다. 긴 문장을 한사람이 암기한 뒤 귓속 말 로 마지막 사람에게 전달하면, 마지막에 있던 사람이 얼마나 정확하게 말하나 하는 게임이었다. 암기력과 말하는 전달력을 요구하는 게임 이었다. 수업이 끝난 뒤 우리는 교수님과 단체 사진을 찍었다. 처음 온 날부터 마지막 수업 날 까지 항상 밝게 웃으며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과 정이 들어서 인지 학생들 너도나도 찍겠다며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점심을 먹고 듣기 수업을 하러 다시 학교에 왔다. 마지막 듣기 수업은 시험 봤던 문제를 되짚어 보며 설명해 주시는 시간 이었다.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시험보고, 다시 설명해 주셔서 인지 확실히 이해가 갔었다. 한 달간 대련 민족학원에서 공부했다는 수료증도 받았다. 수료증 뒤에는 회화와 듣기 시험 성적이 적혀있었지만, 그래도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듣기 수업이 끝난 뒤에 역시나 우리는 카메라를 꺼내 교수님과 사진을 찍었다. 졸릴 수도 있는 오후 수업을 이끌어 나가시느라 고생하셨을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도 드렸다. 이렇게 우리의 수업일정은 끝이 났고 시원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 회화 시간 >

D-25 ~

삼주동안 머물렀던 대련을 떠나 상해로 출발하는 날이다. 우리는 짐을 가지고 모두 1층으로 모였다. 오고가며 함께 정들었던 분들을 모두 뒤로 하고 우리는 대련 공항으로 출발했다. 한국에서 대련 가는 시간 보다 대련에서 상해가는 시간이 더 걸렸던 것 같다. 상해에 도착 후 처음 느낀 생각은 ‘우와 ~ 상해 역시 좋다’ 이었고, 두 번째 들었던 생각은 ‘덥다’ 이었다. 공항에선 에어컨 바람을 쐬느라 몰랐던 더위가 버스로 이동하려 잠깐 나왔을 때부터 느껴졌다. 성시일 교수님과 친분이 있으신 어느 한 제자 분께서 우리를 마중 나와 주셨고, 우리는 그 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숙소까지 편안히 갈 수 있었다. 우리가 4박 5일 동안 머물 장소는 상해 남 역과, 상해 사범대 사이에 위치한 모텔 168 이었다. 버스에서 잠깐 내리는 더위에도 숨이 턱 막힐 정도였다. 그런데 다행히도 숙소 로비 1층에서는 와이파이를 잡혀서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쉽게 연락을 할 수가 있었다. 짐을 풀자마자 우리는 타고 왔던 버스를 타고 다시 이동했다. 성시일 교수님의 제자 분이신 류광일 선생님께서는 茶를 감정하시는 분 이셨기에 우리는 회원만 들어갈 수 있다는 차관을 방문 할 수 있었다. 중국 문화에서 ‘차 문화’를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1층부터 3층 까지 이루어진 차관은 각각 방마다 인테리어가 너무 예쁘게 되어있었고, 시설 또한 깨끗하고 정교했다. 우리는 ‘철관음’을 마시면서 그 분에게 차에 대한 설명을 조금이나마 들을 수 있었다. 철관음은 마시고 난 다음 찻잔에 남아있는 향이 너무 좋았다.

차 설명을 조금이나마 듣고 난 뒤 내일 다시 와서 정식으로 수업을 듣기로 약속 하고, 우리는 개별 활동을 시작했다. 심양에서와 마찬가지로

로 상해에서도 1년간 공부했던 친구 덕분에 우리는 길 헤매지 않고, 바로 신천지로 향할 수 있었다. 북경 대련 심양 다 가보았지만 신천지처럼 발전 된 곳은 보지 못했던 것 같다. 신천지는 말 그대로 정말 신천지 같았다.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거의 대부분 이었고, 건물하나 하나 서양의 느낌이 났다. 어떤 물건이던지 가격 또한 만만 치 않았지만, 그래도 너무 좋았다. 중국에 있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힘들었던 딱 한 가지는 밤이 되어도 사라지지 않는 더위 때문이었다. 상해에서 땀 닦을 손수건은 필수 인 것 같다. 내일부터 아침에 돌아다녀야 하는데 걱정이 앞설 만큼 더웠다.



<신천지 거리>



<차관>

D- 26 ~

대련에서 너무 선선하게 지내다 왔는지 적응이 안 될 정도로 더웠다. 로비에서 밖으로 발을 한 발 내딛는 순간 땀이 흘렀다. 그런데 상해 사람들은 이정도 더위쯤이야 더운 것도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상해를 온 둘째 날인 오늘 첫 여행지는 난징동루 이었다. 너무 더웠지만 그래도 재미있었다. 지하철을 타고 다시 어제 모였던 차관으로 향했다. 유 선생님께서는 원래 30시간을 들어도 모자란 강의지만 3시간에 압축시켜서 설명을 해주시겠다고 하셨다. 우리는 시원한 곳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차에 대해 조금이나마 더 알 수 있었다. 차에는 녹차, 백차, 황차, 청차, 홍차, 흑 차가 있으며 발효 시킨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라 설명하셨다. 녹차는 차가운 기운이고 점점 흑 차로 갈수록 따뜻해진다고 하셨다. 즉, 몸에 열이 많고 일명 왈가닥 일수록 녹차를 많이 마시고, 이에 반해 손발이 차고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일수록 흑 차를 마시라고 하셨다. 세계 3대 음료에는 탄산음료, 커피, 차 가 있는데 술에 들어 있는 카페인 성

분은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 보다 내보내는 게 더 많고, 차는 노폐물을 밀고 나가니 차를 많이 마시라고 설명 하셨다. 선생님께서는 차에 대해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 보이셨다. 이외에도 예전에는 차가 당뇨병 치료제로도 쓰였고, 차의 종류, 산속에서 차잎을 찾는 법, 차를 우려내는 시간, 차를 보관하는 방법, 맛있게 마시는 방법 등 일 생활에서 알 수 없던 유익한 정보들을 아낌없이 설명해 주셨다. 세 시간 동안 차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고 물론 다 알 순 없지만, 그만큼 중국 사람들이 차를 생각하는 마음이나 기본적인 정보들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설명을 들은 뒤 우리에게 조그마한 차를 선물로 주셨고, 명함도 주셨다. 1층에서 단체 사진을 찍은 뒤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하러 이동했다.



<차를 따라 주는 모습>



<용정차>

성시일 교수님과 함께 우리학교 선배님들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 박태준 선배님, 성기혁 선배님, 최운학 선배님 등 상해에서 자리 잡고 계신 선배님들이셨다. 삼겹살을 먹으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내일모래 상해 서커스도 보여주시고 저녁도 사주신다고 약속도 받았다.

D-27 ~

아침에 눈을 떠서 간단하게 컵라면과 만두를 먹고 예원으로 향했다. 예원은 낮에 봐도 정말 아름답고 예뻐다. 상점이 많아서 이곳저곳 둘러보다 어느새 해가 졌다. 해가 지면서 건물들에 불이 하나씩 들어오는데 역시 그 스케일이 남달랐다. 기름을 살짝 두르고 구운 만두 안에 고기와 물이 들어있는 상해 만두도 너무 맛이 있었다. 예원을 구경하고 우리는 동방명주로 향했다. 그 더운 날씨를 잊을 만큼 야경이 너무 아름다웠다.

중국인지 유럽인지 착각 할 정도의 아름다움 이었다. 와이탄을 바라보며 우리는 사진 삼매경에 빠졌고, 이곳저곳을 배경으로 카메라를 들기에 바빴다.



D-28 ~

눈을 뜨고 우리는 대한민국임시정부로 향했다. 15元の 입장료를 내고 들어간 곳, 따로 학생할인은 되지 않았다. 안쪽은 사진촬영 금지라고 쓰여 있었고, 안쪽에는 김구선생님의 집무실과 기숙사, 주방 등이 꾸며져 있었다. 한국 사람이 상해에 왔으면 꼭 들려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녁이 되어 우리는 선배님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서커스를 보여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신 것이다. 운이 좋게도 좋은 곳에 앉아서 서커스를 볼 수 있었다. 상해 서커스는 정말 감탄사를 연발하게끔 했다. 나중에 어떤 서커스를 본다 하더라도 상해에서 본 서커스만큼은 잊지 못할 것 같다. 서커스를 본 뒤 우리는 간단하게 맥주 한잔을 하러 선배님들과 자리를 옮겼다. 상해의 마지막 밤을 선배님들과 함께 보내서 너무 좋았다. 성시일 교수님 덕분에 바쁘신 선배님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던 것 같다.

D-29 ~

드디어 한국 가는 날. 길 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한 달간의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다. 현지학습, 교환학생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던 이번 상무 중국어 연수는 졸업을 앞둔 나에게 있어 시야를 넓혀주는 뜻 깊은 한 달 이었다. 책에서 배울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몸소 익히고, 느꼈으며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너무 뿌듯

하다. 대련에서는 하루에 두 번 뜨거운 물이 나오는 시간에만 샤워를 해야 했고, 좋은 방을 얻기 위해 단어를 외우며 쟁탈전을 벌였던 기억, 선배와 후배 그리고 교수님과 조금 더 가까워져서 추억을 만들 수 있게 해준 이번 연수 때문에 올 여름 한 달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고 감사했다.